

농림수산식품부

One-Stop 고객지원서비스 개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월 1일 장태평 장관과 소비자생산자 단체장 및 각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 하는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농식품부는 현장 농어업인, 소비자 등 농식품행정 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농어민의 특성상 인터넷을 통한 민원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화민원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농식품부 전국 민원상담 대표전화인 '1577-1020' 번을 통한 전화상담 시 농업·농촌, 식량, 축산, 수산, 식품안전 등 전문분야별로 One-Stop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며, 상담원이 통화 중일 때 콜백(상담예약)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원과 필요한 시간에 통화를 할 수 있다.

또 전화상담 민원을 담당과에 접수 및 처리하는 SMS 문자서비스를 도입, 실시간적인 민원처리를 도모하는 등 고객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통계청

육계 생산비, 1,311원으로 작년 대비 증가
사료가격 인상으로 소, 돼지, 닭 등 축산물의 생산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닭(육계) 생산비는 kg당 1,311원으로 2008년(1,097원)에 비해 19.5%(214원) 상승했다.

송아지 한마리당 생산비는 273만7,000원으로 지난 2008년(246만7,000원)에 비해 10.9%(27만 원) 올랐다.

돼지(비육돈·100kg) 생산비는 23만9,000원으로 2008년(22만2,000원)보다 7.6%(1만7,000원) 증가했다.

우유 생산비(1ℓ)는 614원으로 2008년(585원)에 비해 5.0%(29원) 올랐고, 계란(10개) 생산비는 1,187원으로 2008년(1,155원) 대비 2.8%(32원) 늘었다.

가축 산지가격 상승으로 소와 돼지 등 대부분의 축산물 마리당 소득도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 번식우의 마리당 소득은 26만4,000원으로 2008년(5만3,000원)에 비해 무려 402.7%(21만1,000원) 늘어났다.

한우 비육우는 134만8,000원으로 2008년(64만5,000원)보다 109.1%(70만3,000원) 증가했다.

돼지는 10만5,000원으로 2008년(7만4,000원)에 비해 42.0%(3만1,000원) 올랐다.

반면 닭(육계)의 마리당 소득은 413원으로 전년(440원) 대비 27원(6.1%) 감소했고, 산란계는 -847원으로 전년도(36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됐다(자세한 내용은 '통계' P122 참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아세안에 AI 가축방역기술 전수

우리나라의 조류인플루엔자 가축방역기술 및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아세안 8개국 조류인플루엔자 전문가들이 5월 31일부터 6월 15일까지 16일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연수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과거 3차례 발생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조치로 질병을 초기에 근절하고 청정국을 유지하는 등 선진 방역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대(對)개도국 무상기술협력사업 중 연수생초청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아세안 8개국에서 자체 선발된 20명의 방역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연수과정은 우리나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및 진단 기술 습득을 위한 이론, 실습과 현장견학을 접목하여 생생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수생들이 실질적인 연수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가축질병 진단키트 등 우리나라 동물용 의약품의 우수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질병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2007년도부터 실시하여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이번 연수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에 우리나라의 선진 방역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참가국들의 높은 호응을 얻어왔으며,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 제고와 한·아세안 국가간 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외국어 국경검역 홍보 방송 실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2000년 이후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 11일부터 이주민방송(MNTV)을 통해 국경검역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의 국경검역 외국어 홍보방송은 최근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진 사회상을 반영한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자가소비용으로 국내 입국 시 휴대하거나 국제우편물로 들여오는 햄, 소시지 등 불법축산물의 반입금지 계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의하면 세계적인 구제역 발생원인으로 육류, 육제품 또는 음식물 쓰레기(66%), 공기(바람) 또는 철새(22%), 가축수입(6%), 오염된 물질 또는 사람(4%), 백신(3%) 등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처음으로 시도하는 외국인 근로자 국경검역 홍보는 이주민방송에서 한글을 포함한 14개국 언어로 제작하여 본방송 전에 약 32초간 캠페인식 '스팟광고'로 홍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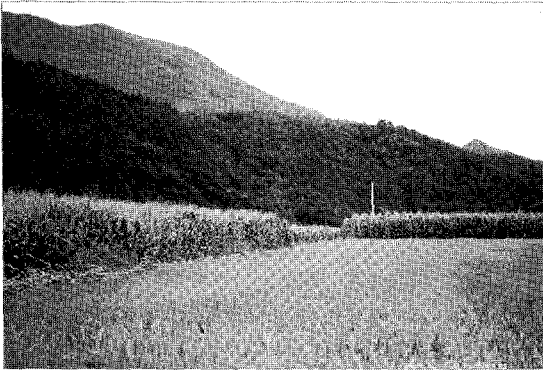
스팟광고는 이주민이 한국으로 입국할 때 휴대가 금지되어 있는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햄, 소시지 등)에 대한 정보와 외국인 근로자가 축산농가에서 근무할 때 지켜야 할 소독, 개인위생 등 기본적인 방역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반입할 수 없는 금지축산물을 휴대한 경우에는 입국장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관에게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 공항만에서 해외여행자의 신발소독, 휴대품 검색, 해외여행 축산농가 교육과 소독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여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재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논’에서 사료용 옥수수 재배 성공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국내 쌀 수급의 불균형으로 쌀 재고가 늘어남에 따라 논에서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하면 쌀 생산 조절은 물론 수입 사료용 곡물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쌀 생산 조절을 위해 논에 벼 대신 콩이나 옥수수 같은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3백만 원을 지원한다는 정책이 발표되면서 사료용 옥수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논에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할 경우 먼저 배수(물 빠짐)가 양호한 논을 선정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벼농사보다 사료용 옥수수 재배가 소득을 더 올릴 수 있어 쌀 재고 문제와 함께 부족한 양질 조사료까지 해결할 수 있어 최적의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논에서 옥수수를 재배할 때 사일리지로 60톤/ha를 생산하면, kg당 160원으로 환산하여 조수입이 9,600천원에 이르며, 정부 보조금 3,000천원을 합하면 12,600천원/ha으로 벼 재배보다 ha당 1,800천원 이상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어 벼농

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논에서 옥수수 재배의 성공비결은 첫째, 물 빠짐이 좋은 지역의 선정, 두 번째는 큰 비나 장마철에 논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하는 배수로 정비 등 세심한 관리, 세 번째는 기계화와 단지화 조성으로 작업의 효율성 제고, 네 번째는 논에서 적응성이 높은 품종의 선택과 진압, 적기 수확 등이며, 이런 관리만 철저히 하면 수입 조사료 대체효과뿐만 아니라 수입 곡물사료 대체도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논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벼 대체 사료작물 재배를 유도해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한 논을 이용한 양질 사료작물 생산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개원 58주년 맞아 축훈제 등 기념행사 실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원장 리승용)은 지난 5월 10일 개원 58주년을 맞아 축산시험연구사업과 구제역으로 인해 희생된 가축들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축훈제를 드리고 우수연구원 시상 등 개원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1952년 5월 농림부 중앙축산기술원으로 발족한 이래 2010년 5월

10일자로 개원 58주년을 맞이했다.

올해 개원기념 행사는 구제역의 확산으로 인한 과학원 차단방역을 위해 외부인사의 초청을 자제하고 내부 직원들로 조출하게 행사를 진행했다.

국립축산과학원 수원 청사 내 있는 축훈비 앞에서 진행된 축훈제는 분향, 강신, 참신, 초헌, 축훈사 낭독, 아헌, 종헌, 사신의 순으로 진행됐다.

축훈비 앞에는 가축들이 좋아하는 배추와 무, 사료, 건조, 생초 등이 맨 앞에 위치하고 다음에는 흥동백서를 지켜 밤과 배, 꽃감, 대추, 사과, 당근 순으로 차려진 제상이 마련됐다.

축훈사에는 “최근 우리나라는 구제역의 확산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 땅에 축산업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라는 내용을 담았다.

국립축산과학원 라승용 원장은 “매년 많은 가축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나라 축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특히 올해는 구제역의 확산으로 많은 가축들의 희생이 뒤따르고 있다”며 “우리 모두 화합·단결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선행관측사업 실시

정부는 2009년 9월에 생활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선행관측’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 후원 하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오세익)은 2009년 하반기부터 올해 4월까지 약 6개월간의 준비를 통해 중기선행

관측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중기선행관측사업을 통해 채소류(배추, 무, 양파, 대파)는 5월부터 매월 1일, 축산물(돼지고기, 닭고기)는 매월 25일에 3~6개월 이후의 생산·출하·가격 등의 예측정보가 제공되어 가격변동성이 큰 이들 품목에 대한 시장 수급과 가격안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농업관측사업은 농축산물의 생산, 출하, 재고, 소비 동향 및 해외시장 정보 등을 분석하여 출하 1~2개월 전의 수급 및 가격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단기관측으로 재배면적이나 사육규모 등 생산규모 조절을 위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중기선행관측이란 차기 생산이 시작되기 이전에 출하기 수급 및 가격 예측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경우에 생산자의 재배(사육)규모 조절 또는 유통부문의 수출입량의 자율적인 조절을 유도하여 농축산물 시장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6개 품목에 대한 사업 효과를 면밀히 평가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관측품목을 확대해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상반기 축산물HACCP운용 우수업체 시상식 개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석희진)은 지난 5월 3일 대회시설에서 상반기 축산물 HACCP운용 우수업체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은 축산물HACCP적용 작업장들 중



그 운용·관리 수준이 우수한 업체로서 전년도 정기심사 결과를 토대로 학계, 소비자단체, 관련단체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에서 현장평가를 통해 엄선했다.

그 결과 식육포장처리업 중에서는 (주)에이스푸드, 알가공업은 (주)풍림푸드, 유가공업은 매일유업(주) 청양공장, 집유업은 서울우유협동조합(포천집유장), 식육판매업은 내서농협 하나로식육점 등 5개 업체가 최종 선발되었다.

하반기에는 식육가공업, 가축사육단계, 사료공장에 대하여 우수업체(농장)를 선발할 예정이다.

석희진 원장은 이 자리를 통해 축산물HACCP운용수준 우수업체의 노고를 치하하고, 금년에 시범적으로 시작한 축산물HACCP 운용수준 평가를 내년부터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이들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ACCP따라 테마체험 여행’ 실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지난 5월 20일 서울과 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25명과 학부모 17명을 대상으로 ‘HACCP따라 테마체험 여행’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체험 프로그램에 따라 축산물 HACCP 지정 우유가공공장인 롯데삼강을 방문하여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생산과정을 견학하고 아이스크림을 시식하기도 했다.

또한 (주)다영푸드를 둘러 아이들 간식으로 손꼽히는 햄·소시지 등 오리를 원료로 하는 다양한 제품의 제조과정과 축산물HACCP지정을 받은 업체로서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안전한 제품생산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노력을 기울이는 현장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기준원 관계자는 학생들이 HACCP 현장체험을 통해 안전한 식품생산과정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보였고, 학부모들도 이번 HACCP체험 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즐겨먹는 먹거리의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석희진 원장은 HACCP따라 테마체험 여행은 학교급식의 주체인 일반소비자(학생 등)에게 축산식품 위생과 안전관리 시스템인 HACCP을 알리고 이를 통해 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림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내 축산물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하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먹거리 선택의 기회 제공과 함께 위생의 취약지대에 있는 학생들의 식생활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중부지원 설립 및 개원식 개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법정법인으로서 사육단계, 축산물가공, 유통 및 판매 단계 HACCP이 확대됨에 따라 민원 편의와 업무효율

성 제고를 위해 지난 5월 1일부로 중부지원을 설립했다.

지원 개원식은 최근 구제역 상황 등 사회여건을 감안하여 지난 5월 4일 자체 행사로 간소하게 개최했다.

업무관할은 대전광역시, 충남, 충북 지역에 대하여 지정 및 정기심사 업무를 담당하며, 업무 범위는 소, 돼지, 닭 사육농장(종축업, 종계업, 오리농장 제외), 축산물가공, 유통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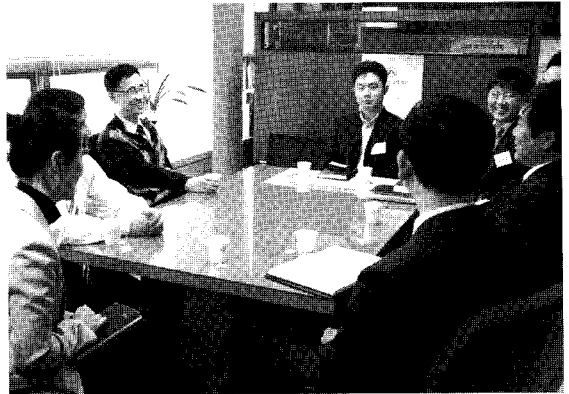
석희진 원장은 앞으로 중부권 민원처리에 있어서 신속,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봉사할 것이며, 특히 HACCP 추진을 위한 기술지원과 현장애로사항 등의 해소를 위해 중부지원에 기술상담센터를 개

설하여 중부권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640-1 더존타워 604호
- 전화 : (042)822-6210

축산물품질평가원

즐거운 일터(GWP) 만들기에 나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은 지난 5월부터 새로운 직장 문화조성을 위한 '즐거운 일터(GWP : Greater Work Place) 만들기'에 나섰다.

즐거운 일터(GWP : Greater Work Place)란 조직 내 신뢰(Trust)가 높고, 업무에 대한 자부심(Pride)이 강하며, 즐겁고 보람(Fun) 있게 일하는 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GWP를 도입한 것은 업무중심의 기업문화를 사람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경직되어 있는 조직문화를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문화로 정착시켜 가치 창출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GWP 도입은 지난 3월에 부임한 최

형규 원장의 평소 경영마인드인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해서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즉,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겠다는 경영방침이 밑바탕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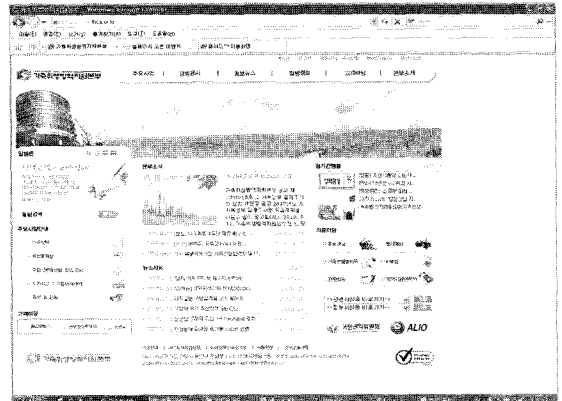
즐거운 일터(GWP) 만들기는 조직 내 부문 간 협력적 문화 형성을 위해 신뢰(Trust), 자부심(Pride), 즐거움(Fun)이라는 기본이념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프로그램은 조직 내 부문 간 협력적 문화형성을 위한 소통 프로그램인 크로스 미팅(Cross Meeting), CEO와의 식사를 통해 감성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CEO와의 스페셜 밀(Special Meal), 정시 퇴근을 장려하여 가족과 함께 여가 활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그린데이(Green Day) 등 15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신바람 나는 직장을 선도하는 즐거운 평가원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앞으로도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GWP 진행과정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내년에는 더욱 발전된 GWP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조직의 건실한 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홈페이지 오픈 이벤트 실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배상호)는 지난 5월 24일부터 웹접근성 및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신규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신규 홈페이지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도 원활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모든 기능을 키보드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등 웹접근성을 강화했으며, 홈페이지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가입 시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공공 I-PIN을 적용하여 주민번호 유출 가능성을 없애고, 비밀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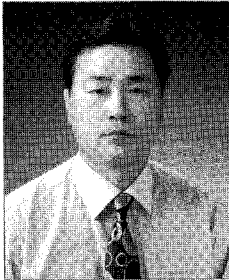
또한 가축질병 청정화와 안전축산물 공급을 추구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이미지 홍보를 위해 자연친화적이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하여 디자인했으며, 초기화면 구성도 고객이 가장 요구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울러 홈페이지 회원에게는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동향 및 대처방안, 축산관측·축산물 가격 등 축산정보와 보도자료, 정기간행물, 사업추진현황 등 방역본부 소식을 이메일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방역본부는 홈페이지 오픈을 적극 홍보하고 자 신규 회원과 정책고객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이벤트를 실시하여 20명에게 농수산물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양계산업발전협의회

주양돈 회장 선출



양계사료 PM 모임인 양계산업발전협의회(양발회)는 지난 5월 7일 건국대학교 동물자원생명과학대 305호실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임원개선과 최근 당면현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임원 개선으로는 그동안 회의를 이끌어 오던 권순관 회장(제일사료 R&D)이 임기를 다함에 따라 앞으로 협의회를 이끌어갈 회장에 주양돈 양계PM(홍성사료)을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총무는 홍성철 양계PM(대한제당)이 맡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사료가격을 인하한 농협 사료의 인하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기타 업계 당면 현안에 대해 의견교환이 있었다.

(사)한국농수식품CEO연합회

‘농수식품경영체 실무과정’ 교육 실시

정부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업인재개발원이 주최하고 (사)한국농수식품CEO연합회(회장 강웅)가 주관하는 ‘농수식품경영체 실무과정’ 1기 1차 교육(총 5회)이 지난 4월 27~28일, 양일간에 걸쳐 농수식품법인 실무자 34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화성시 소재 라비돌리조트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농업인들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기업화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면서 현재 6,300여개의 농업법인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농업법인에 특화된 교육은 수반되지 못했다.

이러한 교육의 부재로 인해 관련법령이 정비되어 당연한 권리임에도 무지로 인하여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관련법 적용여부 등과 같은 시시비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경영효율성을 저해해 왔었다. 더욱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자체적인 교육여건이 여의치 않아 신입사원의 경우 일정수준의 실무능력을 갖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다반사였다.

이에 농수식품법인 CEO(최고경영자)들로 구성된 CEO연합회에서는 법인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인 ‘농어업법인 제도, 세무회계, 농수식품 관련법, 정부정책, 인증제도’ 등 24개 과목을 엄선하고 현장 중심의 우수한 강사진을 구성하여 동 교육을 개설했으며, 또 민간단체 최초로 ‘농수식품경영체 자격증(Generalist)’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실무자격증 시험이 진행되며, 이후 단계별로 실무전문가경영자 자격증을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